

韓醫學에서 보는 精神과 肉體

慶熙大學校 韓醫科大學 教授 洪元植

目 次

1. 머리말. -----	9
2. 정신. -----	10
3. 육체. -----	12
4. 정신과 육체의 관계 -----	16
5. 결론 -----	18
6. 참고문헌 -----	18

1. 머리말

정신과 육체의 관계는 예로부터 한의학에서 깊이 있게 다루어져 왔다. 한의학에서 정신을 “神”이라는 단어로 포괄하고, 육체를 “形”이라는 단어로 포괄하여 이들 사이의 관계를 연구하여 왔는데, 이를 形神論이라고 한다. 形神의 관계는 한의학의 이론체계가 그 골격을 형성하기 시작한 선진시대에 이미 많은 논의가 있었다. 神의 범주에 속하는 내용은 일반적으로 神氣, 魂魄, 七情 등의 정신적인 측면이고, 形에 속하는 내용은 일반적으로 營

衛, 血氣, 五臟 등의 기질적인 측면이다. 한의학에서는 이들 두가지가 한편으로는 각각의 독특한 성격을 가지고 독자적으로 인체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이기도 하지만, 반면에 연관성을 가지고 작용되고 있다고 본다. 건강한 상태, 건강의 파괴, 질병의 발생 등은 이들 두 요소의 상호관계와 연관지워 고찰되었고, 그에 대한 진단 및 치료의 측면도 두 요소의 현재의 관계 상황과 그에 대한 대처라는 면이 중시된다. 이들 두 요소는 陰과 陽이라는 양면성을 기초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서로 떼어 놓고 보아서는 안된다는 것이 한의학의 形神論의 기본 전제이다.

이 글에서는 이와 같은 神과 形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서 먼저 2장에서 神에 관해 알아보고, 3장에서 形에 관해 알아본 후, 4장에서 이들 두가지의 상호관계를 여러가지 측면에서 조명해보고자 한다.

2. 정신

“神”¹⁾은 인체의 생명을 영위하기 위해 수행되는 일체의 정신적 활동을 포괄하는 단어이다.²⁾ 神은 《說文解字》에서 “神, 天神引出萬物者也”라고 하였듯이 그 본래의 의미는 天地, 萬物 변화의 主宰이다. 神은 본래 巫的 의미를 포함하고 있던 개념이 인간의 정신작용을 설명하는 단어로 사용되기 시작하면서 그 의미를 의학에서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우리는 이것을 한나라 시대에 이미 그 개념의 틀을 완성한 《黃帝內經》³⁾에서 찾아 볼 수 있다.⁴⁾ 한의학에서 말하는 神은 대체로 《黃帝內

經》에서 말하고 있는 神개념의 범주를 바탕으로 발전된 것이다. 그러므로 아래에서 《黃帝內經》을 중심으로 神에 관하여 알아 보기로 하겠다.

神은 넓게는 인체 생명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정신작용의 측면에 국한시켜 생각해 본다면 意識, 思惟, 感情 등으로 나타난다. 그런데 이 神의 작용에 의해 나타나는 의식, 사유, 감정, 감각 등은 心에 의해 주도된다. 《素問·靈蘭秘傳論》에서 “心은 군주와 같은 기관으로써 인체를 총괄하는 정신작용이 여기에서 나온다(心者, 君主之官, 神明出焉)”라고 하였듯이 心은 인체의 정신작용을 총괄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心은 臟器로서의 의미와 기능의 작용 단위로서의 두가지 의미를 모두 띤다. 사물에 대한 인식과 사고는 神의 작용인데, 이 神의 작용은 心에 의해 주관되는 것이다.⁵⁾

神은 五臟 중에 心에 배속되어 작용하고 있지만, 다른 장부와도 관계를 맺고

1) 한의학에서는 일반적으로 “神”字의 뜻을 여덟가지 정도로 분류한다. 첫째, 정신활동, 의식사유, 총명한 지혜등으로써, 《靈樞·五色》의 “積神在心, 以知往今”이다. 둘째, 水穀精氣로써, 《靈樞·平人絕穀》의 “故神者, 水穀之精氣也”이다. 셋째, 正氣로써 《靈樞·小針解》의 “神客者, 正邪共會也, 神者, 正氣也, 客者, 邪氣也”이다. 넷째, 專心으로써, 《靈樞·終始》의 “必一其神, 令志在針”이다. 다섯째, 巧妙, 高明의 의미로써, 《靈樞·邪氣臟腑病形》의 “按其脈, 知其病, 命曰神”이다. 여섯째, 氣色으로써, 《素問·刺法論》의 “神失位, 使神采不圓”이다. 일곱째, 針刺感應으로써, 《靈樞·行針》의 “重陽之人, 其神易動, 其氣易往也”이다. 여덟째, 복잡한 변화로써, 《素問·天元紀大論》의 “陰陽不測謂之神”이다.

2) 이는 《靈樞·小針解》의 “神者, 正氣也”라는 문장을 통해 알 수 있다.

3) 醫書名으로 內經이라 簡稱한다. 《素問》과 《靈樞》를 포괄한다.

4) 《素問·五臟別論》의 “拘于鬼神者, 不可與言至德”, 《靈樞·賊風篇》 “黃帝曰, 今夫子之所言者, 皆病人之所自知也, 其母所遇邪氣, 又無愴惕之所志, 卒然而病者, 其故何也? 唯有因鬼神之事乎? 岐伯曰, 此亦有故, 邪留而未發, 因而志有所惡, 及有所慕, 血氣內亂, 兩氣相搏, 氣所從來者微, 視之不見, 聽而不聞, 故似鬼神.”이라는 문장 등에 나와 있듯이 《黃帝內經》이 나온 시기에 이미 귀신을 경외의 대상으로 바라보지 않고 있다.

5) 《靈樞·本神》에서 “所以任物者謂之心”이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心이 사물에 대한 초보적인 인식을 주관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 준다.

작용한다. 《黃帝內經》에서는 神을 魂神 意魄志의 다섯가지 양상으로 나누어 오장에 배속시키고 있는데, 이는 “心藏神, 肺藏魄, 肝藏魂, 脾藏意, 腎藏志”로 표현된다. 여기에서 알 수 있듯이 神, 魄, 魂, 意, 志라는 정신의 다섯가지 양태는 五臟 안에서 작용되고 있다. 이들은 《靈樞·邪客篇》의 “心者, 五臟六腑之大主也, 精神之所舍也”라는 문장에서 알 수 있듯이 모두 心의 통솔을 받는다.⁶⁾ 五臟은 五神(魂神意魄志)을 저장하고 이들을 보호, 통제하여 자신에 배당된 정신작용을 발휘한다. 이것이 五神臟의 개념이다.⁷⁾ 五神臟 개념은 五臟을 중심으로 하고 이들 각각에 관련된 인체의 기능과 부위 등을 연관시킨 藏象學說⁸⁾의 기초 개념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오장이 안정된 상태가 유지되어야만 血脈의 소통이 원활해져 精神의 정상적인 활동이 가능해진다.⁹⁾ 인간의 감정의 표현양식을 한의학에서는 喜, 怒, 憂, 思, 悲, 驚, 恐의 七情으로 표현한다. 이들 七情도 五行의 歸類에 따라 五臟에 배속된다. 즉 肝에 怒, 心에 喜, 脾에 思, 肺에 憂, 腎에 恐이라는 감정이 배속되어 이들 감정이 해당 장부에 의해 주관된다.¹⁰⁾

神은 先天의 精¹¹⁾으로부터 생성되어 後天 精氣의 滋養¹²⁾을 받아 그 생명력을 유지한다.¹³⁾ 그러므로 精이 풍족하면 육체가 건강해지고, 육체가 건강해지면 神의 활동도 왕성해진다. 先天의 精으로부터 생성된 神을 先天之神 혹은 元神이라고 하고, 後天의 精으로부터 생성된 神을 後天

之神 혹은 識神이라고 한다. 한의학에서는 이러한 神이 인체라는 형체에 의지하여 작용되고 있다고 본다¹⁴⁾. 이에 관해서

7) 《素問·宣明五氣》의 “五藏所藏, 心藏神, 肺藏魄, 肝藏魂, 脾藏意, 腎藏志, 是謂五藏所藏”.

8) 한의학 기초이론의 중요한 내용의 하나. 이는 인체 장부활동법칙 및 상호 관계를 연구하는 학설로서 인체는 心, 肝, 脾, 肺, 腎 五臟을 중심으로 하여 膽, 胃, 大腸, 小腸, 膀胱, 三焦 六腑를 배합하고 氣, 血, 精, 津, 液을 물질기초로 삼아 經絡을 통하여 臟과 臟, 腑와 腑의 밀접한 관계를 지니고, 밖으로 五官九竅, 四肢百骸로 연결되어 하나의 유기적인 整體를 구성하고 있다. 이는 중국의 많은 의학자들이 장기적으로 인류생명활동의 관찰연구와 예방치료의 경험을 통하여 아울러 陰陽五行의 이론을 흡수하여 점차 형성하고 발전시킨 학설로서 韓醫의 질병 치료에 중요한 의의를 지니고 있다. 五臟六腑란 일정한 해부개념이 있으나 이는 주로 생리기능과 병리현상을 천명하였으므로 현대 해부학의 장부와 같지는 않다.

9) 《靈樞·平人絕穀》의 “五臟安定, 血脈和利, 精神乃居.”

10) 《素問·陰陽應象大論》에서 이에 관하여 “肝在志爲怒”, “心在志爲喜”, “脾在志爲思”, “肺在志爲憂”, “腎在志爲恐”이라고 하였다.

11) 《靈樞·本神》의 “生之來謂之精, 兩精相搏謂之神”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神은 先天의 精으로부터 유래한다.

12) 《靈樞·平人絕穀》의 “神者, 水穀之精氣也”라고 한 것을 통하여 알 수 있다.

13) 張志聰은 《靈樞·本神》의 “生之來謂之精, 兩精相搏謂之神”라는 문장에 “蓋本于先天所生之精, 後天水穀之精而生此神, 故曰兩精相搏謂之神”이라고 주석을 가했는데, 이것은 神이 先天의 精과 後天 水穀之精의 화합에 의해서 생겨난다는 것을 분명히 해준다.

6) 張介賓은 이에 관해서 《類經》에서 “分言之, 則陽神曰魂, 陰神曰魄, 以及意志思慮之類, 皆神也; 合言之, 則神藏于心, 而凡情志之屬惟心所統, 是爲吾身之全神也.”라고 하였다.

는 4장에서 논의가 있을 것이므로 여기에서는 이것으로 그치고자 한다.

3. 육체

육체의 객관적 기능과 관련된 것들의 대표적인 것으로써 氣, 血, 精, 津液, 臟腑, 經絡, 營衛 등의 개념이 있다. 물론 한의학에서는 이러한 것들도 어느 정도 神과 연관을 가지고 작용되고 있다고 보고 있으므로 肉體하고만 연관시키는 것은 무리가 따를 수도 있지만, 神이 주관적 精神活動이라는 측면에서 생각할 때 객관적 肉體活動이라는 측면도 존재하며, 또 실제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고찰은 인체 生理에 대한 대체적인 윤곽을 잡는데 많은 도움을 준다. 이들

14) 神이 先後天의 精氣에서 근원하고, 형체에 의지하여 운용된다면, 육체적 상태와 정신적 상태는 精氣의 虛實과 五臟의 盛衰를 파악하는데 단서를 제공해줄 수 있다. “神氣가 왕성한 사람은 예후가 좋고, 神氣를 상실한 사람은 예후가 좋지 못하다(得神者昌, 失神者亡)”(《素問·移精變氣論》)라고 한 문장에서 알 수 있듯이 정신 상태의 표상인 神은 진단의 관건이 된다. 인체에 神이 포함되어 있는 곳은 매우 많다. 육체, 눈동자, 얼굴, 언어, 사지운동 등에는 모두 神氣가 나타난다. 그래서 한의학에서는 神氣라고 하는 것은 외부로 드러난 形體까지도 포함하고 있는 개념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醫原·望病須察神氣論》에서 “人之神氣, 在有意無意間流露最眞. 醫者清心凝神, 一會即覺, 不宜過泥, 泥則私意一起, 醫者與病者神氣相混, 反覺疑似, 難于捉摸”라고 하였듯이 神은 밖에서 감지될 수 있는데, 이를 감지하기 위해서는 의사와 환자의 정신적인 감응이 중요하다.

(氣, 血, 精, 津液, 臟腑, 經絡, 營衛)은 육체라는 개념을 담고 있는 “形”이라는 범주 안에서 작용되고 있다.¹⁵⁾

15) 한의학은 形을 위주로 한 學問이라기 보다는 機能을 위주로 하는 학문이기 때문에 解剖學이 발전하지 못했다. 《黃帝內經》에 解剖에 관한 기록이 존재하지만 이후에 이를 근간으로 할 뿐 淸나라 말기까지 별다른 解剖學의 발전이 없다. 이것은 학문적 필요성을 유발시키지 못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韓醫學史를 살펴보면 알 수 있듯이 한의학은 대체로 內科 위주로 발전하였다. 모든 질환의 원인의 많은 부분을 환자 자신 속에서 찾고자 하였고, 이의 치료에 대해서도 修養, 攝生 등의 예방의학적인 측면이 강조되어 왔다. 《靈樞·經水》에는 “若夫八尺之士, 皮肉在此, 外可度量切循而得之, 其死可解剖而視之, 其臟之堅脆, 腑之大小, 穀之多少, 脈之長短, 血之清濁, 氣之多少, 十二經之多血少氣, 與其少血多氣, 與其皆多血氣, 與其皆少氣血, 皆有大數”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문장에서 알 수 있듯이 해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內經》시대의 醫學者들도 공감하고 있었다. 《靈樞·腸胃》에 “脣至齒長九分, 口廣二寸半. 齒以後至會厭, 深三寸半, 大容五合. 舌重十兩, 長七寸, 廣二寸半. 咽門重十兩, 廣一寸半, 至胃長一尺六寸. 胃紆曲屈, 伸之, 長二尺六寸, 大一尺五寸, 徑五寸, 大容二斗五升. 小腸後附脊, 左環迴周疊積, 其注於迴腸者, 外附於臍上. 迴運環十六曲, 大二寸半, 徑八分分之少半, 長三丈二尺. 迴腸當臍左環, 迴周葉積而下, 迴運環反十六曲, 大四寸, 徑一寸寸之少半, 長二丈一尺. 廣腸傳脊, 以受迴腸, 左環葉脊上下辟, 大八寸, 徑二寸寸之大半, 長二尺八寸. 腸胃所入至所出, 長六丈四寸四分, 迴曲環反, 三十二曲也.”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五臟六腑의 길이와 용적을 재어서 기록해 놓은 것으로써 현대 解剖學에서 보아도 상당히 정확하다고 한다. 이를 통해 《內

먼저 “氣”는 無形의 氣와 有形의 氣로 나뉜다. 무형의 기는 元氣,¹⁶⁾ 衛氣, 營氣, 臟腑之氣 등의 형태로 작용하고, 有形의 氣는 凝縮되어 血肉, 臟腑, 精血津液 등의 형태를 띤다. 氣는 生理機能을 促進시키고, 體溫을 유지시키고, 外邪를 막아주고, 혈액, 진액, 정액 등의 물질대사를 간섭하고, 인체의 영양작용을 주관한다. 氣는 陰陽의 변화로 나타나 작용하는데, 이를 통해 정신적인 측면과의 관계가 생긴다.¹⁷⁾

“精”은 인체를 구성하고 생명활동을 유지시켜 주는 기본물질¹⁸⁾으로써 飲食水穀에서 파생된 정미한 물질인 水穀之精(後天之精)과 생식을 위해 사용되는 生殖之精(先天之精)으로 나뉜다. 《靈樞·決氣》의 “兩神相搏, 合而成形, 常先身生, 是謂精”에서 알 수 있듯이 精은 발생에서부터 神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으면서 形을 구성하기 이전의 기본물질이기도 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¹⁹⁾

이 氣, 精에 “神”을 더하여 三寶라고 부른다. 精氣神은 三位一體적으로 작용²⁰⁾하지만 이 세가지는 차이가 존재한다. 精과 氣는 상당히 물질적인 성격을 띠고 작용하는데 반하여 神은 완전히 정신적 측면으로만 작용된다. 이 가운데 神이 나머지를 통괄하고 있다.²¹⁾

“血”은 飲食精微에서 화생되어 脈管을 순행하는 혈액을 말한다. 血은 中焦에서 생성되어 인체의 영양을 공급하는 작용을 한다.²²⁾ 이것은 氣의 박동에 의하여 전신 각 장부조직에 공급되어 정상적인 기능활동을 유지시켜 준다.²³⁾

“津液”은 飲食精微가 胃, 脾, 肺, 三焦

등 臟腑의 작용을 통하여 化生된 영양물질을 말하는 데, 脈內에 있는 것은 혈액을 조성하는 성분이며 脈外에 있는 것은 조직의 사이에 널리 퍼져 있다. “津液”은 津과 液의 구분이 있다. “津”²⁴⁾은 체액을 조성하는 것으로 음식에 근원하여 三焦의 氣를 따라서 肌膚腠理의 틈새에 출입하면서 肌肉을 溫養하고 皮膚를 윤택케 한다. 津이 腠理로 나오면 땀이 되고 아래로 膀胱에 達하면 소변이 되는데, 腠理가 닫혀

16) 原氣라고도 함. 元陰과 元陽氣를 포괄한다. 이는 先天의으로 品受하여 後天的인 영양으로 滋生하는데 先天之精의 화생에 유래하므로 원기라 한다.

17) 《素問·陰陽應象大論》의 “陰陽者, 天地之道也, 萬物之綱紀, 變化之父母, 生殺之本始, 神明之府也.”에서 알 수 있듯이 陰陽은 神의 작용을 주관하므로 神은 陰陽에 의지하면서 작용하여 변화 막중한 각종 현상을 주재한다.

18) 《素問·金匱真言論》의 “夫精者, 身之本也”.

19) 張介賓의 《類經圖翼·大寶論》에서 “形以精成, 而精生于氣”라고 하여 形은 精을 기초로 하여 형성된다고 보았다.

20) 《曜仙神隱》에서 “修養攝生之道……勿要損精, 耗氣, 傷神. 此三者, 道家謂之全精, 全氣, 全神是也. 三者既失, 真氣耗散, 體不堅矣”라고 하였다.

21) “神雖由精氣化生, 但統馭精氣而運用之主者, 又在吾心之神”(張介賓).

22) 《靈樞·決氣》의 “中焦受氣取汁, 變化而赤, 是謂血”, 《靈樞·營衛生會》의 “此所受者, 泌精粕, 蒸津液, 化其精微, 上注于肺脈, 乃化而爲血, 以奉生身, 莫貴于此”등.

23) 《素問·五臟生成論》의 “肝受血而能視, 足受血而能步, 掌受血而能握, 指受血而能攝.”

24) 《靈樞·決氣》에서 津을 “腠理發泄, 汗出溱溱, 是謂津”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經》시대에도 이미 상당한 정도의 解剖學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津이 체외로 배출되지 못하면 膀胱으로 내려가 小便이 增大되며, 이와 반대로 땀이 많이 배설되면 津이 水로 化하여 膀胱으로 내려가지 못하게 하여 小便을 감소 시킴으로써 생리적인 體液을 조절시킨다. 病理上 津液이 손상된 사람은 땀과 小便이 감소되며 반대로 지나치게 배설이 심하면 津을 傷하게 된다. “液”²⁵⁾은 三焦로 布散되어 關節, 腦髓와 耳目口鼻 등 孔竅를 濡養하는 것이다.

精, 血, 津, 液 네가지는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작용한다. 이들은 神을 기초로 하고 있다는 데에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26) 그러나 그 중에서 血이 가장 神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²⁷⁾

“臟腑”도 形을 이루고 있는 중요한 요소이다. 臟腑는 五臟과 六腑로 구성되어 있다. 五臟은 肝, 心, 脾, 肺, 腎臟을 총칭한 것이다. 藏象學說에 의하면, 오장은 인체생명활동의 중심으로, 정신의식활동이 五臟에 분속되며,²⁸⁾ 여기에 六腑의 배합이 더해지고 인체 안팎의 조직기관이 연계지워져서 하나의 통일된 整體를 구성한다. 六腑는 膽, 胃, 大腸, 小腸, 三焦, 膀胱 6개 기관의 총칭으로 出納, 轉輸, 水穀轉化의 공동기능이 있다.²⁹⁾ 五臟과 六腑는 陰陽적으로 相互補完, 促進, 抑制을 하여 인체 생리 기능을 정상화 시켜준다.

“經絡”은 氣血이 운행하는 통로이니 經脈과 絡脈 양부분을 포함하는데, 그 중에서 直行하는 幹線을 經脈이라 하고, 經脈에서 分出되어 전신의 각부분을 망라한 分枝를 絡脈이라고 한다. 經絡은 전신의

25) 《靈樞·決氣》에서 “液”을 “穀入氣滿, 淖澤注於骨, 骨屬屈伸, 洩澤補益腦髓, 皮膚潤澤, 是謂液”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氣血을 운행하고 臟腑, 肢節을 연결시켜 上下內外로 통하게 하고, 각 부분 조직기관을 조절해주는 통로이며, 따라서 인체의 유기적인 연계의 整體活動을 진행시켜 준다. 經絡과 臟腑는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이 깊은 관련은 인체 기능의 계통망과 같이 작용되고 있다.

“營衛”는 營氣와 衛氣의 합칭으로써 모두 水穀精氣에서 化生한다. 營氣는 脈속을 운행하는데 中焦에서 나와서 血液의 化生과 전신의 영양작용이 있고³⁰⁾, 衛氣는 脾胃를 근원하고, 上焦에서 나오며 脈의 밖을 운행하는데 그 性이 剛悍하고 運行이 迅速流利하여, 溫養內外, 護衛肌表, 防禦外邪, 滋養腠理, 開闔汗孔 등의 기능이 있다.³¹⁾

이들 요소들이 인체의 形器 속에서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生理, 病理 현상이 수행되고 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이러한 요소들

26) 청나라 周學海의 《讀醫隨筆·氣血精神論》에서 “精有四, 曰精也, 血也, 津也, 液也”라고 하였다.

27) “血者, 神氣也”(《靈樞·營衛生會》).

“血氣者, 人之神”(《素問·八正神明論》).

28) 《靈樞·本臟》의 “五臟者, 所以藏精神血氣魂魄者也”.

29) 《靈樞·本神》의 “六腑者, 所以化水穀而行津液者也”. 《素問·五臟別論》의 “六腑者, 傳化物而不藏, 故實而不能滿也”.

30) 《靈樞·邪客》의 “營氣者, 泌其津液, 注之于脈, 化以爲血, 以榮四末, 內注五臟六腑”.

31) 《靈樞·本臟》의 “衛氣者, 所以溫分肉, 充皮膚, 肥腠理, 司關闔者也. 志意者, 所以御精神, 收魂魄, 適寒溫, 和喜怒者也. 是故血和則經脈流行, 營覆陽, 筋骨勁強, 關節清利矣. 衛氣和則分肉解利, 皮膚調柔, 腠理緻密矣”.

에 의해 이루어지는 인체의 생리현상을 自然의 現象에 대비시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다. 인체의 생리를 자연과 대비시켜 설명하는 논리체계를 한의학에서는 “天人相應說”이라고 한다. 이것은 春秋戰國時代에 이미 諸子百家들의 중요한 논쟁거리 중의 하나였다. 古代의 의학자들은 “仰觀天文, 俯察地理”라는 장기적인 실천을 통하여 醫學, 天文學, 氣象學등의 自然科學의 인 문제들을 天人相應이라는 理論을 통하여 論하였다. 內經에서도 人間과 자연의 관계를 상세하게 논하고 있다.³²⁾

韓醫學에서 天人相應 이론은 인체의 생리활동과 자연계의 변화가 상호관련이 있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다.³³⁾

天人相應의 이론이 갖는 두가지 중요한 의의가 있으니, 첫째, 人間은 自然에 依賴하여 살아가며 그 氣가 서로 통한다는 것³⁴⁾과, 둘째, 人體는 自然계의 변화에 대하여 調節, 適應能力이 있다는 것이다.

32) 《靈樞·邪客》의 “黃帝問於伯高曰：願聞人之肢節，以應天地奈何。伯高答曰：天圓地方，人頭圓足方，以應之。天有日月，人有兩目，地有九州，人有九竅。天有風雨，人有喜怒。天有雷電，人有音聲。天有四時，人有四肢。天有五音，人有五臟。天有六律，人有六腑。天有冬夏，人有寒熱。天有十日，人有手十指。辰有十二，人有足十指。莖垂以應之，女子不足二節，以抱人形。天有陽，人有夫妻。歲有三百六十五日，人有三百六十節。地有高山，人有肩膝。地有深谷，人有腋膕。地有十二經水，人有十二經脈。地有泉脈，人有衛氣。地有草蓂，人有毫毛。天有晝夜，人有臥起。天有列星，人有牙齒。地有小山，人有小節。地有山石，人有高骨。地有林木，人有募筋。地有聚邑，人有膈肉。歲有十二月，人有十二節。地有四時不生草，人有無子。此人與天地相應者也”。

35)

이와같이 天人相應의 理論은 醫學에 있어서 人間과 自然을 하나의 統一的인 整體觀的 觀點으로 설명하여 韓醫學의 生理, 病理, 診斷, 治療, 豫防등에 중요한 이론적 기초를 제공하였다. 인체는 이와 같이

33) 중국에 있어서 고대의가들은 一元論에 영향을 받아서 氣는 세계를 구성하는 기본물질이고, 自然계의 일체사물을 生成, 發展, 消亡시키는 것은 모두 陰陽의 두 氣의 작용에 의하여 가능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素問·至真要大論》에서 “天地合氣, 六節分而萬物化生”이라고 하여 天地萬物이 모두 氣에 연원을 두고 있으니 인간도 또한 기에서 연원을 한다고 생각하였다. 《難經·八難》에서 “氣者, 人之根本也”라고 하여 人과 天地가 共紀(靈樞, 營衛生會篇)으로써 人間의 生理, 病理變化는 모두 自然계의 變化와 일치한다고 생각하였다.

34) 그 예로 《素問·六節藏象論》의 “天食人以五氣, 地食人而五味”, 《六微旨大論》의 “人能應四時者, 天地爲父母”, “上下之位, 氣交之中, 人之居也”으로써, 人間이 天地의 가운데 살면서 天地의 影響을 받으면서 살아간다는 설명이다. 《素問·金匱真言論》의 “五臟應四時, 各有收受”, 《生氣通天論》의 “平旦人氣生, 日中陽氣隆, 日西而陽氣已虛, 氣門乃閉”, 《八正神明論》의 “月始生, 則氣血始精, 衛氣始行, 月廓滿, 則血氣實, 肌肉堅, 月廓空, 則肌肉減, 經絡虛, 衛氣去, 形獨居”는 인간의 생명활동은 四時, 六氣, 日月, 星辰의 운행변천에 따라서 변천한다는 것이다.

35) 인류는 장기적인 생존경쟁을 통하여 자기 스스로를 조절하여 생활해 가는 자동조절기능을 가지고 있다. 《靈樞·五癆津液別論》에서 이를 “天暑衣厚則, 腠理開, 故汗出, ……天寒則, 腠理閉, 氣濕不行, 水下流于膀胱, 則爲尿與氣.”라 설명하고 있다.

자연과 상응하면서 자신의 생리기능을 영위해 간다.

4. 정신과 육체의 관계

한의학에서는 정신과 육체를 상호 보완하는 관계로 본다. “形은 神의 體이며, 神은 形의 用이다. 神이 없으면 形은 영위될 수 없고, 形이 없으면 神은 생겨날 수 없다.”³⁶⁾라는 말과 같이 形과 神은 體用的으로 작용한다. 形과 神이 분리된 것은 질병이며, 그 극단적인 경우는 죽음이다.³⁷⁾ 그러므로 육체적으로 건강하고 정신적으로 유익함을 유지하여 건전한 인생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신과 육체의合一(形神合一)에 힘써야 할 것이다. 《內經》에서는 이를 “形與神俱”라고 표현하였다.³⁸⁾ 形과 神은 상호보완적이므로 어느 한가지의 일방적인 우세 만으로 정상적인 생명활동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반드시 서로 보완적일 때만 정상적인 생명활동이 가능하다.³⁹⁾

한의학에서는 육체와 정신 중 한쪽의 일방적인 우세는 질병이며, 죽음이라는 견해를 가지고 상호 主宰, 의지, 억제, 반작용을 논하고 있다. 이를 두가지로 나누어 보면, 첫째, 神이 形을 기르고 主宰한다는 관점이 있다.⁴⁰⁾ “神爲生之主”라고 한말에서 알 수 있듯이 神은 인간의 생활을 주관한다. 神이 없다면 形은 다스려질 수 없다.⁴¹⁾ 둘째, 神이 形에 의지한다는 측면이다. 육체가 파괴되지 않아야 정신이 흩어지지 않는다.⁴²⁾ 그러므로 육체는 정신이 머무는 집과 같다.⁴³⁾ 그러므로 形이 튼튼해야만 건전한 정신이 그 안에 깃

들 수 있다. 神은 形의 자양을 받아 생겨나기도 한다. 음식을 필요한 만큼 먹으면 인체가 정상적으로 작용되어 精氣로 轉化되는 작용이 원활하여져서 血을 化生시켜서 神을 길러주므로 神氣가 여유있게 되어 생기발랄하게 된다.⁴⁴⁾ 즉 神의 기능이 투철해지기 위해서는 血氣의 자양이 필요한데 이 血氣의 자양은 먼저 五臟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⁴⁵⁾ 五臟의 상태가

37) 《靈樞·天年》의 “百歲, 五臟皆虛, 神氣皆去, 形骸獨居而終矣”. 《靈樞·邪客》의 “心傷則神去, 神去則死矣”.

38) 《素問·上古天真論》에서 “能形與神俱, 而盡終其天年”이라는 하였다.

39) 《靈樞·天年》의 “血氣已和, 營衛已通, 五臟已成, 神氣舍心, 魂魄畢具, 乃成爲人”에서 보듯이 한의학에서는 정신과 육체가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아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0) 《素問·五常政大論》의 “神去則機息”.

41) 《類經·針刺類》의 “無神則形不可治”.

42) “形體不散, 精神不散”(《素問·上古天真論》).

43) 《景岳全書·治形論》에서 形을 “神明之宅”이라고 하였다. 여기에서 形은 전체적인 몸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器質을 지니고 있는 인체 器官, 예를 들면 五臟六腑등도 포함하여 말한 것이다. 五臟이 神明을 저장한다는 것은 앞서 말한 바 있다(“心藏神, 肺藏魄, 肝藏魂, 脾藏意, 腎藏志”). 그러므로 五臟이 손상을 입으면 神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그 반대로 神에 이상이 생기면 五臟의 조직등에도 이상을 초래할 수 있다.

44) 《靈樞·決氣》의 “胃滿則腸虛, 腸滿則胃虛, 更虛更滿, 故氣得上下, 五臟安定, 血脈和利, 精神乃居, 故神者, 水穀之精氣也”.

36) “形者神之體, 神者形之用, 無神則形不可活, 無形則神無以生”(《類經·針刺類》)

정상일 때 정신은 정상적일 것이고, 정신의 정상은 五臟機能의 원활함을 나타내주는 지표이다.

정신과 육체는 항상 상호 협조, 상호 억제를 반복적으로 나타내주어 인체의 평형을 유지시켜 준다. 어느 한쪽의 지나친 독점은 인체의 균형을 파괴시켜 病을 초래한다.

七情을 예로 들어 설명하겠다. 앞서 2장에서 七情이 五行의 歸類에 따라 五臟에 배속되어 해당 장부에 의해 주관된다고 하였다. 七情만을 가지고 이야기하자면 七情은 객관적인 사물에 대한 정상적인 반응이지만, 돌발적이거나 강렬하거나 지속시간이 장시간일 때에는 이를 자극하여 스스로의 조정능력을 상실시켜 臟腑, 氣血, 陰陽등에 영향을 미쳐 질병을 일으킨다. 七情이라는 정신적인 원인이 육체적인 증상을 불러 일으키는 것이다.⁴⁵⁾ 《素問·舉痛論》에서 “百病生于氣也, 怒則氣上, 喜則氣緩, 悲則氣消, 恐則氣下, 寒則氣收, 炆則氣泄, 驚則氣亂, 勞則氣耗, 思則氣結”이라고 하여 七情과 육체의 관계를 氣에 의해 매개시켜 설명하고 있다. 감정의 변화는 氣의 흐름의 변화를 일으켜 끝내는 육체적 이상을 초래하는 것이다.

45) 《靈樞·本神》의 “肝藏血, 血舍魂, 肝氣虛則恐, 實則怒, 脾藏營, 營舍意, 脾氣虛則四肢不用, 五臟不安, 實則腹脹經澀不利. 心藏脈, 脈舍神, 心氣虛則悲, 實則笑不休. 肺藏氣, 氣舍魄, 肺氣虛則鼻塞不利少氣, 實則喘喝 盈仰息. 腎藏精, 精舍志, 腎氣虛則厥, 實則脹, 五臟不安. 必審五臟之病形, 以知其氣之虛實, 謹而調之也.”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인체의 정신은 五臟을 기본단위로 하여 작용되므로 오장의 상태는 인체의 정신상태를 파악하는데 관건이 된다.

정신적인 원인이 육체적인 질병으로 나타나거나 그 반대로 육체적인 원인이 정신적인 질병으로 나타나는 예는 많이 있다. 한의학에서 精神病의 영역으로 논의하고 있는 癲癩, 癲狂, 脫營, 失精 등이 그 예이다. 癲癩은 痰이 위로 치받쳐 생기는 육체적인 원인 때문에 생기지만 그 증상은 人事不省이라는 精神의인 症狀으로 나타난다.⁴⁷⁾ 癲狂은 반대로 지나치게 분노하였거나 지나치게 웃었거나 하여 痰火를 壅盛시켜 나타나는 症狀이다.⁴⁸⁾ 과거에는 귀한 신분이었지만 나중에 천한 신분으로 떨어져 생기는 脫營, 과거에는 잘살았지만 나중에 못살게 되어 생기는 失精등은 邪氣에 감염되지 않아도 병이 안에서부터 생겨 신체가 날로 여위고, 氣가 줄어들고 精이 없어지는데,⁴⁹⁾ 이것도 정신적인 원인이 육체적 질병으로 나타나는 예이다.

이와 같이 정신과 육체는 상호 보완적이므로 이 양자의 조화가 바로 한의학이 추구하는 목표이며 理想인 것이다.

5. 결론

神은 정신작용의 측면에 局限시켜 생각해 본다면 意識, 思惟, 感情, 感覺 등으

46) 怒라는 감정에 의한 육체 손상을 黃帝內經에서는 “大怒則形氣絕, 而血菀于上, 使人薄厥”이라 표현하였다.

47) 許浚, 東醫寶鑑, 南山堂, 1981, P 99. “癲癩者痰邪逆上也, 痰邪逆上則頭中氣亂, 頭中氣亂則脈道閉塞孔竅不通, 故耳不聞聲目不識人而昏眩倒仆也.”

48) 上揭書, P 101, “多喜曰癲, 多怒曰狂”.

49) 上揭書, P 102, “嘗貴後賤, 雖不中邪, 病從內生, 名曰脫營. 嘗富後貧, 名曰失精.”

로 나타난다. 그런데 이 神의 작용에 의해 나타나는 의식, 사유, 감정, 감각 등은 心에 의해 주도된다. 神이 心에 배속되어 작용하고 있지만, 다른 臟腑와도 관계를 맺고 작용한다. 이는 “心藏神, 肺藏魄, 肝藏魂, 脾藏意, 腎藏志”로 표현된다.

形과 관련된 기능의 대표적인 것으로써 氣, 血, 精, 津液, 臟腑, 經絡, 營衛 등의 기능이 있다. 이들은 인체의 생명활동과 자연계의 변화가 상호관련을 설명하고 있는 天人相應論을 바탕으로 설명될 수 있다. 人間과 自然은 하나의 統一的인 整

體이므로 인체는 자연과 相應하면서 자신의 생리기능을 영위해 간다. 인체의 객관적 생명활동은 자연과의 合一 속에서 일어난다.

이 神과 形은 상호 보완하는 관계이며 形과 神이 분리된 것은 疾病이며, 그 극단적인 경우는 죽음이다. 그러므로 육체적으로 건강하고 정신적으로 유익함을 유지하여 건전한 인생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신과 육체의 合一(形神合一)에 힘써야 할 것이다.

6. 참고문헌

- (1) 洪元植 편저, 『中國醫學史』, 동양의학연구소, 1987.
- (2) 『黃帝內經素問校釋』上·下, 인민위생출판사, 1982.
- (3) 『黃帝內經靈樞校釋』上·下, 인민위생출판사, 1982.
- (4) 周谷城, 『中醫學三百題』, 上海古籍出版社, 1989.
- (5) 王克勤, 『中醫神主學說』, 中醫古籍出版社, 1988.
- (6) 董連榮, 『中醫形神病學』, 光明日報出版社, 1991.
- (7) 許浚, 『東醫寶鑑』, 南山堂, 1981.